후원회소식

통권 166호 | 발행일 2005. 8. 11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광복 60주년
모든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에게 자유를!

8.15광복 60돌 민족통일 대축전▶
백두한라 통일 선봉대발대식

·목·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 2 / 남북민족작가대회 홍일선 • 4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고성화 • 6 / 신간안내 • 7 / 감옥에서온 편지 민경우 • 8 / 이런회원 · 심주이 회원을 찾아서 ·심주이 회원을 찾아서 오영순 • 10 / 회원마당 · 산행기 김영철 • 12 / 정치수배자 가족의 편지 황 선 • 13 / 회원마당 · 금강산을 다녀와서 김봉례 • 14 / 시사만평 • 17 / 알립니다 • 18 /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0 /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현황 • 22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3 / 재정보고 • 29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전쟁광신자가 떠벌이는 가당찮은 민주주의와 인권 타령

권오헌 | 회장

집권 여당은 오는 8.15광복절에 생계형 범법자 등 430만 명에 대한 특별사면 방침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형이든, 배고파 담을 넘었던 생존형 범죄까지도 사실은 정부의 평등사회로의 정책 부재 소산이었다는데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지난 7.15일 제1차 사면안 건의로부터 26일 수정안 건의까지 한결같이 고심하며 관철시키려한 것은 개탄스럽게도 부정비리 정치인을 끼워넣으려 한 점이다. 그것은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던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모금 범죄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감옥에 가는 듯하다 곧바로 풀려났으며 사면·복권의 대상자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그러한 범죄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사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이라 했다. 참으로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었다.

광복절 60돌이란 역사적 의미를 뒤로 미룬다 해도 사면의 진정한 의미와 대상은 잘못된 법과 제도로 부당하게 갇혀있거나 부당하게 수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자유를 회복시키는 일일것이다. 따라서 광복절 사면의 우선 대상은 양심수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처음부터 구속되어서도 수배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사람들이었다. 바로 양심수는 그들 개인이나 소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 공동선을 위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6.15공동선언이행 등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그리고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동했으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양심에 따른 활동으로 구속된 확신수이기도 하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다행히 노동관계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관련 양심수가 포함되고 있었지만 이름있는 사람 등 생색내기와 유형별 차별, 그리고 선별 사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별사면 뿐아니라 일반사면까지 배려했다면 양심수는 조건없이 전원 석방과 사면 · 복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지만 흔히 창살없는 감옥으로 표현되고 있는 정치수배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방침을 내놓고 있지않다. 그래서 광복절 의미를 살리고 6.15공동선언시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졌다면 특별사면을 건의하면서 부정비리 정치인 끼워넣기의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뒤늦었지만 아래와 같은 양심고백을 했어야했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정치수배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학생회장, 한총련 의장 또는 중앙상임위 등 특별기구 대표로 뽑힌 자주적인 학생대중조직의 간부들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등 반통일, 반인권 악법으로 부당하게 이적단체구성, 가입 혐의를 받아오고 있는 피해자들이다. 이제는 6.15공동선언시대이다. 이들 학생들을 수배자로 몰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존립명분을 잃었으며 한총련, 범민련이 사실상 합법화된 오늘 그 실효성도 사라졌다. 한총련을 포함한 수백 명의 남북대학생들이 잇달아 만나고 있으며 한총련 의장이 합법적으로 금강산과 평양 6.15대축전에 다녀왔다. 12, 13기 한총련이 사실상 합법화된 조건에서 아직도 한총련 대의원이었다는 이유로 수배 받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뒤늦었지만 정부 여당은 냉전시대의 낡은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오랜 시간 각종 질환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시달려온 이들 정치수배학생들에 대한 조건 없는 수배해제 조치를 적극 건의하게 되었다"

지난 7.21일 한총련 정치수배모임 학생들은 민가협, 민변,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치수배 전면해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6일엔 기독교회관에서 조건 없는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와 8.15양심수 전원석방 및 복권을 위한 정치수배자 농성돌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같은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수배 학생들의 고통은 참담함 바로 그것이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쫓기는 조건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로인한 정신적 불안감과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끊임없는 협박, 회유, 사찰에 시달리고 심지어 가족을 동원한 자수 권유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고 있어 가족들 또한 심한 스트레스에 건강을 해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협심증, 부정맥 등 즉시 입원 장기치료를 받아야하는 학생을 비롯하여 만성위장질환, 스트레스형, 편두통, 생리이상, 아토피성 피부염, 추간판탈출증, 만성기관지염, 비염, 고혈압, 체중과다 등 두 가지 이상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수배 학생들에 대한 종합검진은 이미 2003년 3. 9일과 15일에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의뢰하여 당시 수배학생 176명 가운데 106명에 시행한 바 있었다. 위장 관계질환 53명을 비롯하여 근골격계질환(50명), 호흡기계통질환(25명), 심혈관계질환(12명), 간장질환(8명) 순이었다. 그 중에는 부정맥, 협신증, 고도근시, 혈소판 저하증 등 즉시 정밀검사와 진료가 요구되는 학생이 5명이나 있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첫째, 수배상태에 따른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건강문제

둘째,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생활로 인한 각종 신체적 건강문제

셋째, 사회적인 고립상태로 인한 기존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되지 않아 악화되고 있는 문제 등 이었다.

이제 이들 수배 학생들에 지워진 부당한 형틀을 풀어야한다. 사회적으로 고립화시키고 있는 반인권, 반문명적 야만상태에서 해방되어야한다. 감옥에서는 부모형제, 친지, 학우 등 면회를 할 수 있고 집필과 독서, 일정한 운동 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수배 학생들은 24시간 불안 공포의 생지옥 속에 머물고 있다. 감옥보다 더한 창살 없는 감옥의 빗장을 풀어야한다.

더구나 이들 학생은 부정비리 범법자는 물론 생계형, 생존형 범법 혐의자도 아니다. 오히려 조국사랑의 열정을 불태운 죄 밖에 없다. 한총련은 출범에서 오늘까지 조국의 자주화 사회민주화와 통일, 학생운동의 국제연대, 건전한 민족문화구현, 학원의 공동체성 회복, 학우들의 부문별 계열별 활동지원, 건강한 사회인 양성 등 그 강령전문에서 보이듯이 나라와 겨레사랑, 사회진보, 학원자주, 인성발전 등에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해왔었다.

"한총련 정치수배자들도 사면대상이다"

마침내 한총련의 정당성 합법성을 부정해 오던 공안당국이 이제 그것을 사실상 철회한 상태이다. 이제는 정치적 사면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사상 · 양심의 자유, 단체 결성의 자유, 조국사랑의 자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행복추구권, 수배학생들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

혹시라도 정치수배자들은 기소되었거나 판결 받지 않았기에 사면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란 광복의 의미를 살린다면 사실상 감옥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되찾게 해야 한다.

1988년 12월 21일 대사면에서의 예가 있다. 이른바 공안당국이 말하는 시국사범 194명 전원석방(기결수 41명 특별사면·복권, 수사 중인 30명 검찰에서 구속 취소 석방, 재판중인 123명 법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 석방)할 때, 시국관련 수배자 61명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수배해제 조치를 했었다. 또한 문민정권 출범 때도 양심수 사면과 함께 정치수배자들에게 공안당국에 신분 확인하는 것으로 전원 수배 해제된 바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이란 역사적 의미를 살려 양심수전원석방 사면 · 복권하라 한총련 대의원 등 모든 정치수배 학생들에게 조건 없이 수배 해제하라 이미 풀려난 비전향장기수를 비롯한 통일애국인사,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모든 양심수를 사면 · 복권하라.

편집자주

이 글은 지난 7월30일 양심수사면을 촉구하기위해 청와대,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 유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평양에 다녀와서

홍일선 | 회원

마침내, 마침내! 라는 다소 격정적인 단어가 고단한 시인의 가슴 한켠에서 7월 짙푸른 하늘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다.

나의 또다른 반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보내온 고려항공 비행기 P561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것도 내게는 하나의 거대한 담론의 시작이 될 것이다.

2005년 7월 20일 오전 10시 58분! 희뿌연 안개 속을 헤치고 평양에서 날아온 조금은 낯선, 그러나 작고 아담한 비행기가 은빛햇살에 반짝이며 우리 앞에 정좌해있는 것이다. 누군가 그리운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눈빛을 하고...

내 남루한 육신이 어떤 힘에 의해 스스로 움직였을 것이다. 그 힘의 원천은 민족이었으리라.

안개가 걷힌 인천공항은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였지만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에 참가한 1백여 문학인들을 깨우치는 죽비소리로 들렸다면 이 또한 분단시대를 가뭇없이 살아온 시인의 비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리라.

사람들은 때로 망각의 강 저쪽 어딘가를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우리에게 해방60년은 피맺힌 분단 60년의 동의어였다. 우리가 기억의 저켠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해방 직후 남북간의 문학인들 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성찰 속에서 1945년 12월 13일 전국문학자대회를 개최한 문학사가 희미하게 불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국문학자대회는 분단문학의 서장을 여는 신호였던 것이다.

그날의 아픈 이름들이 우리 앞에 지금 명료하게 있다. 이것또한 우리에겐 아픈 역사인 것이다.

이기영, 한설야, 김사량, 임화, 유진오, 박세영, 신석정, 박승극, 이원조, 박찬모, 조운, 조남령, 박산운, 이병철, 김상훈 선생들의 면모를 그려본다.

그러나, 그 후 이땅의 문학사는 서울문학과 평양문학으로 나뉘는 통한의 역사를 무슨 업보처럼 가슴에 담아두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오늘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우리에게 60년, 환갑이 지칭하는 의미는 냉전시대 분단 이데오르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북남간, 남북간 신새벽 통일의 문학사를 새롭게 기록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실로 분단 60년은 어처구니없는 외세가 놓은 덫에 걸린 주술의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 남북문학인들이 그 주술을 한자루 펜으로 풀려한다. 더디 걸리더라도 우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길을 갈 것이다.

2005년 7월 20일 오전 11시

20분 인천공항을 이륙한 고려항공기는 내고향 살가운 어머니의 마음을 닮은 것같은 압록강 위를 50여분만에 꿈결처럼 지나가고 있다. 창밖에는 아득한 평야. 이제 두벌매기 김을 맸을 잘자란 벼포기와 옥수수대들이 열을 맞추어 일제히 군무를 추는 아름다운 산하, 저 들녘이야 말로 우리가 찾아가야할 민족문학의 근원이리라. 내 생애 처음 대면하는 북녘산하. 아득한 풍경들이 내 눈을 흐리게 한다.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다.

단 한번도 발디뎌본적 없는 국경아닌 국경을 넘어섰다는 비감이 우리 문학인들을 들뜨게 하지만 나는 안다. 우리 마음속에 오랜 시간 내재해 있었던 분열과 증오의 시간도, 외세의 벽도 한민족 한겨레라는 반만년 장구한 강물을 어쩌진 못한다고 다짐하다가 문득 2000년 9월 2일 평양에 귀환한 예순세분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의 이름들이 어른거린다.

김석형, 김선명, 이종, 신인영, 홍경선, 김동기, 홍문거, 김중종, 우용각, 황용갑, 고광인, 김창원, 김종호, 황용갑, 고광인, 김창원, 김종호, 윤희보, 박문재, 조창손, 김인서, 이종환, 김은환, 함세환, 한장호, 최하종, 안영기 선생님 등등 여러 선생님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0.75평 독방에서 세계행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고 45년에서 최하 30년을 감내한 모진 역사가 도합 2045년이라니... 한사람의 육신과 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문과 죽임의 망령들이 떠돌았던 한반도.

그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순국의 길을 무슨 힘으로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인가. 1950년생인 나 또한 분단시대에 시를 쓰면서 살아왔지만 정녕 민족에 한점 부끄럼없는 단한현의 시를 썼다고 감히 단언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내 문학이 한반도 통일과 민족의 화해에 기여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근자 민족작가대회 일정이 확정된 후 통일원 자료실에 들려 평양에서 발행되는 「조선문학」과 「통일문학」지에 실린 장기수 선생님들이 쓴 수기와 문예작품들을 읽다가 그 어른들의 민족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 내 얼마나 가슴이 숙연해졌던가.

그분들에 대한 서울에서의 크고 작은 회상에 잠길 때 어여쁜 고려항공기 승무원의 평양도착 안내방송이 은빛 햇살속에 아주 천천히 풀려나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남쪽에서 오신 민족작가 선생님. 여기는 평양입니다" 시간은 2005년 7월 20일 오후 12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양공항 양켠에 서있는 미루나무 잎새가 분단 60년의 쓰라린 세월을 지우며 가난한 시인의 눈을 적시고 있었다.

분단은 38선 국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오래된 미래, 그 문학 속에 있었던 것이다. 평양공항에 도착해서 나는 이제까지의 내 반쪽 불구의 문학을 발견한 것이다.

●홍일선●

- 1950년 경기 화성 출생
- 1980년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
- 시집으로 『농토의 역사』
  『한알의 종자가 조국을 바꾸리라』
  『聖 시화호(근간)』등
- 현, 시의 거울 시의 경계『시경』 편집주간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

천하제일의 명산 금강산을 다녀와서

출소장기수 고성화 선생님

범민련 남측본부가 산하 각 지역별 조직성원 중심의 금강산 관광이 7월 15,16,17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조직하여 7월 14일 저녁 동국대학교에 집합하여 14일 밤을 그 곳에서 자고 15일 아침 동국대학을 기점으로 출발하게 되어있었다.

나이 많은 분들은 15일 아침 여덟시까지 집합에 지장 없이 참가하면 된다고 해서 나는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자고 제주에서 참가하는 일행과 동국대학에서 합류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장소에서 그들과 합류하였다. 지방에서 올라온 인원수를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서울, 충청, 광주, 전주, 대구, 부산경남, 제주를 위시하여 각 지역별로 집합한 인원수는 약 2백 명에 가까운 숫자였다.

15일 9시에 버스 네 대에 분승한 참가인원은 동대를 출발하였고 아침식사는 차내에서 하게 되어있었다. 서울시를 빠져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14시에 점심식사를 하고 남측 출입사무소 15시 30분에 수속, 17시 15분에 북측 출입사무소 도착과 함께 소지품 검사수속이 있었다. 내 조국에서 관광객의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우리 일행은 남과 북 두 곳 출입사무소의 검사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금강산 숙소로 달렸다. 그 곳에서 저녁식사 후 북쪽 예술단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무대에 출연한 가수들은 한결같이 우리 민족의 고유의 의상 차림으로 출연하였으며 한곡 한곡 부를 때마다 큰 박수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나라 예술을 우리 고유의 식대로 승화시킨 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극장을 나와서 각 조별로 숙소배정이 있었고 일부는 술파는 매점에서 한 잔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었다. 15일 밤은 이렇게 지나갔다.

16일 아침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아침식사 후 우리 일행이 금강산 일만이천봉 중에 가장 먼저 볼 곳은 구룡폭포(구룡연이라고도 함). 그 전경을 보기위하여 8시 30분경에 출발하였다.

등산로의 밑바닥은 깬 돌을 깔아놓은 길이여서 제주를 떠날 때 준비 없이 떠난 길이라 '비니르 구두'가 나의 발을 괴롭혔다. 나의 일행 구성원은 처녀 둘, 총각 둘이었는데 내가 구룡폭포를 향하여 걸어 올라갈 때 네 젊은이들이 나의 신변을 세심하게 보살펴주었다.

구룡폭포까지 도중하차하는 분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목적한 '구룡연'까지 산행을 실천하였다. 구룡폭포까지는 여덟 다리를 지나고 또 한참 걸어야 도달할 수 있었는데 도중 북쪽에서 만들었다는 금강산 관광손수건을 북쪽 일꾼들이 팔고 있어서 사람들은 기념용으로 사기도 하였고 그 대금은 3천원이었다. 나는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으

나 대회는 그러지 못해 안타까웠다.

구룡에서 흐르는 물이 다양하게 흩어진 돌 사이를 흘러가는 모습과 절벽의 석벽위에 돋아난 소나무나 잣나무 등 참으로 기이하게 보였다. 그리고 이 물이 모여 금강산댐을 형성하고 댐에서 흐르는 물이 원산을 거쳐 안변까지 흐르게 하여 안변의 청년발전소를 작동시키고 있다고 한다.

네 젊은이의 돌봄을 받아 구룡폭포에 도착하였는데 기진맥진한 나는 금강산의 절경인 구룡폭포를 넋 나간 사람모양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도 장엄함에 압도되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백 미터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그 절벽은 예부터 있었으니 우리 민족의 역사보다 훨씬 전인 태고 때부터라고 생각되었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굵은 기둥과 같은 물줄기 그 곳에 전설이 아홉용이 살았다해서 구룡연이라 하였고 그 수심은 알 길이 없다.

그 장엄한 구룡폭포를 본 나는 절뚝거리면서 그 곳까지 올라온 것이 잘하였다고 자위하기에 충분하였다.

한시반까지 내려가야 점심을 끝내도 내가 평소부터 보고 싶던 삼일포를 분수 있을 것인데 발과 다리는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걱정이 앞선다. 절뚝거리면서 여덟 개의 다리를 내려오면서 눈에 띈 것은 자연의 조화였다. 오랜 세월동안 흘러내리는 물에 씻겨 돌마다 목욕을 깨끗이 하여 그런지 어느 돌을 보아도 때가 없어보였다. 청정이란 말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다.

금강산의 절경을 본 어느 시인은 아~ 아 금강산이여! 금강산이여! 하고 절규할 뿐 달리 시구를 찾지못하였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절경이 아니고는 이럴 수는 없다. 아홉시에 출발하여 11시에 구룡연에 올라 점심시간 13시 30분까지 가까스로 하산하여 북쪽에서 경영하는 목란관에 닿으니 촌보를 움직일 일에 걱정이 되었다. 식당에서 냉면 한 그릇으로 점심식사를 때우고 삼일포와 온천으로 우리는 각자 보고 싶은 곳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삼일포는 평소부터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청정한 수면 넓은 호수 끝 간 데 없이 보이는 곳이 삼일포였다. 과연 천하 제1의 말 그대로, 삼일포. 듣기로는 금강산 일만이천봉은 말할 것도 없고 직접 가보지는 못하였지만 만물상과 구룡폭포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다시 말해서 금강산에 가보지 않고는 산을 말하지 말라는 게 나의 금강산에 대한 평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산중에 천하제일의 산이 있다면 그 산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 있는 금강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16시30분 평양 모란봉교예단 공연은 손에 땀을 쥐는 듯 하는 아슬아슬한 곡예였다. 비상조치도 없이 잘못되면 크나큰 부상, 아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곡예를 무난히 해치우는 장면에 관객들은 큰 박수를 보내었다.

이번 금강산행은 남쪽의 유일한 통일조직인 '범민련'이 더욱 굳센 조직으로 나가기 위한 반통일적 행동들을 짓부수고 진정한 통일세력과 조직적 연대를 더욱 확대 강화하는 뜻있는 관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명시한 자주,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범민련의 기치아래 모든 통일조직을 결집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의 한 길로 총매진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지면서 90인생이 바라보는 금강산의 자연에 대한 묘사는 감성이 둔하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금강산 기행문을 끝마친다.

신간안내

고성화 선생님 회상기

통일의 한길에서

■ 구입 문의■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가격: 12,000원

민경우 | 전주교2500

존경하는 권오헌 선생님께

건강하신지요. 하루가 다르게 한 여름의 폭염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참으로 바쁘시게 다니실텐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지냅니다. 6월 하순부터는 원예 출역을 나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침 8시에 나와서 5시경에 방에 들어옵니다.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가량 그다지 힘들지 않고 적당히 기분 좋은 노동을 하고 들어오지요. 파란 하늘, 양껏 걸을 수 있다는 거리감,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것 등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방에 들어오면 밀린 신문, 읽을 거리를 보고 9시에 TV가 끝나면 책을 약간 보다 잡니다.

낮에 일이 고되었으면 책보기가 만만치 않고 잡념없이 쉽게 잠이 드는 편입니다. 저로써는 아주 좋습니다.

너무 책, 생각, 관념 속에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잡념도 없어지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몸이 많이 타서 면회온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더군요.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보내주신 영치금이며 기관지며 간략한 편지글이며 모두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所라는 공간으로 구획된 안과 밖에 있다기보다는 한 공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지켜오신 길을 후대의 입장에서 잘 이어가는 것으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일 보안수사대에 연행되는 바로 그 순간,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거짓말처럼 지난 2번째 징역에서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지루하고 뻔한 수사와 재판... 각오는 했지만 허전하고 지루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에 비하면 너무나 낙후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공방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국가보안법 철폐 논의가 붙기 시작하던 2005년 8.15~2005.3.1까지는 곧 나갈 수 있겠거니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줄이고 담담하게 하루를 사는 것, 바깥 일에 관심 갖기보

다는어쨌든
주어진 징역이라는 공간에충실하는 것,이렇게 마음먹고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책보기,글
씨기도 위와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부턴가 수양,명상,욕심을 비우는 것 따위에 관심이 가더군요.세상을 어떻게 바
꾸어야 하는가하는 생각은 실현할 수 없다면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주인으로서의 나의'품'을
넓혀 두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고나 할까요.사실은 그런 목표보다도 그저 마음을 비우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너른 사람이 되는 것...모든 사물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마
음을비우게 되면 끊임없이잡념과 미련이 밀려들고 또 다른한편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의편
안함도 조금씩 느껴가도있습니다.원예출역을 나간 것은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돌아보면 30대 10년간 범민련에 있 으면서할 만 큼 했던 것 같습니다.애는 썼지만 '나'라고하
는 인간 자체가 보잘것 없으니 애는 쓰더라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이 작았던 것이 아니
었을까요?
40대에는 조금은 진전된 삶을살았으면 합니다.노숙하고편안하고 안정감있고 세련된 대중운
동가...
아무도 역시 통일운동에 몸 담을 듯 하구요.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그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30대에 알았다면 지난 10년이 조금은
더 사랑스러운 기억이 되지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세는 좋아지고 있는거지요.특히 '신보'에서는 6.17면담에 대해적극적인 편가를 했더군요.
참으로 놀랍습니다.10년전 쯤 저는 연방제를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먼 미래의 어느 때에나 실
현 가능한 목표하고 생각했습니다.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마음이었습니다.그런데 불과5,10년 후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참으로 몰랐습니다.
정세의 흐름을 생각하면 감옥에 있 으면서도 즐겁습니다.운동가들은 자신의 신념이 현실과 또
는 역사와

다부진 삶이 눈부시다

심주이 회원을 찾아서

오영순 | 편집위원

카랑카랑한목소리에 주인공 심주이 회원을 대학로에서 만났다. 맑고 명랑한 목소리만큼이나 젊고 예쁜 회원과 마주하고 보니 후덥지근한 더위가 가셔진듯한 상쾌함을 느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코 녹녹지 않았던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던 회원은 세자매중 첫째란다. 부모님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들이셨으나, 경제 활동이 불안정하셨던 아버지로 인해 집안 형편은 늘 가난에 연속이였던 듯하다. 추운 겨울 난방과 전기가 끊겨 고생했던 기억들을 더듬은 것만 봐도 그렇다.

일하러 나가신 부모님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기에, 그 시간속에 서로 부대끼고 의지하며 성장하였다는 동생들에 이야기를 쏟아내는 도중 회원에 얼굴이 상기되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삶에 목표를 정해놓고 예쁘고 바르게 성장하여 사회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동생들을 보며 자랑스러워 하고 있음이라!

심주이 회원에 꿈은 화가다.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대학 진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회원은 실업계 상고를 들어간다.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학교측의 소개로 전국축협노동조합에 취직을 하게 된 심주이 회원은 이곳에서 많은 깨달음을 안는다.

재단비리와 친분 관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직원들과 조합원들간의 싸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고, 친숙했던 사람들이 자기편이 아니라 생각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극적으로 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어떻게 사는게 보람있는 삶일까? 라는 고민을 안게 되었다 한다.

이 무렵 노동조합에서 지역통폐합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되였는데, 이때 옆에서 '국가보안법철폐' 운동을 하고 있는 양심수 후원회를 만나게 된다. 하여 후원회에서 외치는 '국가보안법철폐' 운동이 이치에 맞는 소리였기에, 양심수 회원이 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심주이 회원이다.

1년여 동안 근무하였던 전국축협노동조합에서 많은 깨달음을 새로이 알게 된 심주이 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그림 공부를 그당시 바로 시작할 수 없었노라 한다. 기정 형편이 어려워 회원에 월급을 가정사에 보태줘야 했기 때문이란다.

얼마전 오랜기간 일했던 사무실을 그만두면서,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에만 전념하기 시작하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비축해놓았던 비상금이 떨어져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오랜기간 꿈꾸워 왔던 그림 공부를 하고 있기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리라.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 누구보다 편안하고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 대중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회원이 내년쯤엔 강사로 활약할수 있단다. 강

사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인증된 강사로 활약하면서 대중들과 호흡하며 만나는 시간들이 기대되고 설레이기에 지금까지 어렵게 밟아온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자부하고 있는 회원이 어여쁘다.

진정한 화가가 되려면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아 행복하다는 그녀. 철학공부도 해야 되고, 포토샵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임 있는 곳이면 빠지지 않고 어디든 참석하여 대인관계를 다지는데 주력한다는 회원의 나이는 이제 스물여섯이다.

경제적인 압박속에서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해 주저함없이 열정적으
활하고 있는 회원이 아름다
아직은 친구들과 놀고 싶은
이에 흔들림없는 가치관으로
에 삶을 열정적으로 가꾸고
모습 때문일게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
획을 세웠다가도 쉽게 행하지
는게 사람이거늘 유년시절부
꾸워왔던 꿈을 접지 않고, 실
옮겨내고 있는 심주이회원에
분명 우리 젊은 세대가 본받
일이다. 개인에 야망이나 티
젖어 사는 인생관을 과감히 떨
고, 자신이 꿈꾸워왔던 소박

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회원에 다부진 삶이 눈부실 수밖에 없는이유도 여기에 있음이라!

전문성을 가져야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믿기에, 나이 서른쯤에는 전문인이 되여, 모든 걸 구체적으로 옮겨내며 살거라 확신하는 회원에게 작은 박수를 보낸다. 또한 대중화가로 거듭난 회원이 나이 서른쯤엔 필자에게도 사인하나 해줄 날을 간절히 꿈꾸련다.

올 9월 회원에 작은 전시회가 열린답니다.
심주이 회원이 그린 그림하나를 살짝쿵 올리니,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쉬고 보면 새가 날아간 자국까지 보인다

김영철 | 회원(한양대 탈반 여든여덟)

나에게는 양심수후원회 산행에 참가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산행자체가 좋아서, 두 번째는 만나게 되는 선생님과 벗들이 좋아서. 그럼에도 일상의 핑계를 대며 수시로 불참하곤 한다. 그에 대한 설명을 대지 않아도 이해해주시니 또 좋다. 담에 가면 되겠지 하며.. 그렇지만 일요일 아침의 잠깐의 부지런으로 산행의 즐거움과 산에서 먹는 막걸리와 먹거리 그리고 선생님들과 벗들의 좋은 말들은 다음 일주일을 힘있게 자극한다. 대만에 3년 있다 작년 5월인가 불암산 산행에 아들을 데리고 첨 참가한 것 같다. 93년 군대 갔다 와서 양심수후원회 산행을 알게 되고 탈반 동기들하고 후원회에 참가하자고 제안한건 나였는데 그 후 산행을 비롯하여 후원회활동은 남의 일처럼 한 것 같다.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띄엄띄엄이라도 계속 산행을 해주어서 우리 모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 기분이 좋다.

이번에도 역시 투쟁의 현장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시는 선생님들. 그래서 이번 산행은 여름특집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적은 수의 식구들이 모여서 광교산 산행을 수행하였다. (주: 인천에서의 맥아더동상철거 집회와 일정이 겹침)

오전 10시30분 분당선 미금역 15명 집결, 오전 11시 셔틀 리무진 3대로 광교산 입구 도착, 오전 11시10분 여든여덟 회원 3명 상봉. 박철민,박미정,이혜주회원은 뒷풀이 때 쓸 돼지고기를 삶으러 박철민회원 집으로 먼저 갔다.

오후 12시30분 시루봉까지 올라가자는 소수 인원을 가까스로 달래서 하산, 오후 1시 박철민 회원이 만든 정자에 대한 관람 및 품평회(?)를 가지고 난 뒤 특별한 요리법으로 삶은 돼지고기와 쑥으로 만든 빈대떡을 안주로 막걸리, 맥주,소주 등 음주. 산은 참가안하고 뒷풀이만 참여한 회원등으로 전체인원 30명으로 늘어났다.

6자회담 전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은 후 특별한 방법으로 농사한(일명 태평농법) 감자캐기 행사를 갖고 오후 5시 귀가.

마음을 쉬고 보면 새들이 날아간 자국까지 보인다.– 사초 한줄짜리 시라고 하더군요.

이번 산행에 장소를 제공한 광교산과 산행뒷풀이을 위해 정자를 직접 제작하신 박철민 회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글을 맺을까 합니다.

그대가 백두산보다 멀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황 선 | 7년째 수배중인 99년 한총련 의장,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씨 아내

민이 아빠에게

한 달째 장이 안좋아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분통터지는 마음입니다.
매 해 여름과 겨울이면 장염으로 고생하는 것이 이미 몇 해나 거듭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하다니,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도 곁에 머물며 간호를
해 줄 수도 죽 한 그릇 제대로 먹일 수도 없으니 가족들도 덩달아 시름할 밖에요.
당신을 사귀게 되고 오늘까지, 만나면 기쁘고 반가우면서도
그렇게 조마조마할 수가 없었지요. 혹 내가 미행당해 당신이 연행되거나 하면
어쩌나 사람들의 눈빛 하나하나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 신경 쓰느라 신경줄은
더할 수 없이 팽팽하게 당겨지곤 했었지요.
누구도 7년이나 수배생활을 할 정도로 죄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대를 향해 아직도
억지 칼을 강요하는 저 법과 과거지향적인 공안세력들은 언젠가 죄 없는 자를 함부로
모함한 '무고죄인'으로 톡톡히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번 6.15 5돌 행사에는 정부당국자도, 이적단체의 낙인으로 함께
괴롭힘을 당하던 범민련 간부들도, 한총련 의장도,
한청 의장도 평양에 기쁘게 다녀왔습니다. 당신은 기뻐했습니다.
평양 행사장에 다녀온 사람보다 더 자세하게
민족통일선언을 읊고 5돌 행사의 의의를 설파하며
기뻐했습니다. 당신을 한 번도 꾸려보지 못한 '우리 집'
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잠들게 하고 깨우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도 적이 아닌 민족통일행사장에서
함께 어울리는 그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그대가 아직도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는 수배자라는 것이, 평양 다녀온 사람,
금강산 다녀온 사람 만날 때 마다 속상합니다.
이제는 오셨으면 합니다. 백두산 관광이 현실이
되는 시대, 그대가 백두산보다 멀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억지를 끊고
7년이나 떨어져 있던 어머니의 품으로,
사진을 보며 '아빠'를 배우는
우리 딸 민이의 곁으로.
올해는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2005. 7. 20. 당신의 아내 황 선-

금강산을 다녀와서

김봉례 | 회원

6.15 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통일기행이 범민련 주최로 7월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금강산에서 있었다. 금강산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통일기행은 사상과 이념을 떠나 자주 민족으로서의 민족 통일을 위한 "자주통일 원년, 미군철수 원년"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들었지만, 솔직히 그런 것들보다 천하제일 명산 금강산이라는 말에 솔깃해 내생에 이런 영광이 올까 싶어 전화오기가 무섭게 신청하고 말았다.

지방에 있는 회원들을 배려해 전날 동대에 모여 모임이 있었고, 또 한번의 결속력을 다지며 범민련 식구다운 행동을 해주십사 봉사하는 일꾼들이 알려주었다. 출발하는 내일이 기대되었다.

15일 아침.

창가에 앉은 나는 강렬한 햇빛 때문에 간혹 눈을 찡그렸지만, 금강산이 눈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햇빛쯤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또 휴게소에서 그 아무 것도 아닌 것이 태양이 너무 뜨거워 살인했다는 아무개의 글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휴게소에서의 10분이 이삼십 분으로 지체되고, 일하는 젊은 친구들의 발바닥에 땀 났다. 이러지 않아도 지쳐있는 아줌마에게 언제쯤 웃음을 줄 것인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금강산 구경도 못하고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 모두가 웅성웅성 설왕설래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민방위훈련 시간에 걸려 시간이 더 지체되자 모두가 조바심이 났나보다. 설렘을 기다림으로 지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우여곡절 끝에 고성에 도착. 휴대폰을 반납하면서 설렘은 시작됐고, 조금 전까지의 짜증은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화진포 푸른 물결 바닷 속에 던져버리고.. 통일의 염원을 안고 처음 밟게 되는 내 나라 내 땅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통일전망대에서의 통관절차는 비행기만 안 탔지, 인천공항 못지 않다. 어찌됐건 조국이지만 외국에 입국하는것 같았다. 입국절차를 마치고 북측 버스로 갈아탔다.

파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달리는 이 아스팔트 길은 현대에서 관광사업을 위해 놓은 것이며 금강산을 50년 임대한 것이라고 설명해준다. 이쪽 저쪽에 서있는 군인들의 복장에서부터 다르다. 하루 이천여명이 오고간다는 이 길에는 그 흔한 간판조차 없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산밑이라 그런지 옥수수가 많이 심어져있다. 우리는 반가움에 손을 흔들어 주지만 답이 없다. 우리가 묵을 구룡마을을 향해 갈수록 천하제일의 명산이 다가오고

있었다. 구룡마을이라 해서 겨울에는 따듯한 아랫목, 여름에는 시원한 구들목을 생각해서였을까! 막상 도착해보니 포로수용소 같은 납작한 컨테이너가 우리들 기다린다. 북에서 만난 24시간 편의점, family라는 간판이 보인다. 짐을 풀고 자유시간을 조금 가진 뒤 금강산 호텔에서 저녁식사가 있었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주체성 강한 깔끔한 우리들의 음식으로 되어 있어 정말 맛있게 먹었다. 우리는 귀찮아 하며 뽑아버리는 마늘쫑이 여기서는 요리마다 들어가 있어 이채로웠다. 휴대폰만 있었으면 집에 있는 남편에게, 마음에 드는 남자있으면 거기에 남아 돌아오지 말라 농담해주던 아들에게 생중계를 했을 텐데 아쉽다.

저녁 먹기가 바쁘게 금강산 예술단 공연을 보러 갔다. 막이 오르며 귀에 익은 「반갑습니다」로 시작으로 흥이 일더니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 되는구나 싶었다. 식민지 시절 패권주의에서 불려 금지되었다던 우리 옛가요 「홍도야 우지마라, 바다의 교향시 선창」등을 부를 때 남쪽에서 무심코 듣던 노래가 눈물샘을 자극한다. 북측노래는 내용을 잘 몰라도 좋았다. 앵콜이 쏟아지고, 무대복 금박무늬 수놓은 곱디고운 우리 한복도 덩달아 춤추었다. 휘파람을 부를 때는 모두가 신이 나서 따라 불렀고, 「우리 다시 만나요」를 부를 때는 어깨동무로 하나되어 모두가 눈시울을 적시고 있음을 보았다. 7월 16일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너무나 맑은 공기와 깨끗한 푸른 하늘들! 마치 스케치 해놓은 것 같은 저 우람한 바위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있음에 잠시 감격했다. 참으로 일색이다.

금강산 찾아가자 일 만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더라니... 구룡폭포 가는 길. 초입부터 빽빽히 들어선 적송, 미인송, 춘양목이 심상치 않다.

나무 줄기와 푸른 잎들은 남쪽에서 본 우리 꺼와 똑같던데.. 바위를 타고 내려오던 물도 결국은 남쪽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볼 수만 있지 내려가서 만져볼 수도 없게 했다. 통일이 되어 자유롭게 감상하고 만져보는 자유를 그리워해본다.

목란관. 식권을 하나씩 받아들고 목란 다리를 지나 본격적인 산행에 들어갔다. 박상은 선생님과 김은이 나를 염려했지만 가는데까지 천천히 가보겠다며 먼저 보내고 유유자적 올라갔다. 마음 같아서는 한걸음에 뛰어 가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정상을 느낌만으로도 보고 오겠노라고 다짐하며 올라갔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김일성 주석이 3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내이자 혁명 동지였던 김정숙 여사를 회고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 회상다리가 반긴다. 가이드가 공짜로 맡겼으니 꼭 마시고 오라던 산삼녹용이 녹아있다는 삼록수에 이르러서도 물이 없어 마시지를 못한다.

금강문을 지나야 금강산의 진수를 볼 수 있다고 안내문은 써있지만 실제 보니 아주 작은 굴이었다. 정말 그 문을 지나자 빼곡한 푸른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과 바위와 그리고 물소리는 삼위일체를 이루는 절경이었다. "좋다,좋아"를 연발하며 얼마쯤 올라왔을까. 큰 너럭바위에서 모아져 내려오는 저 폭포수 같은 물줄기, 구슬같이 흐른다하여 불려진다는 옥류동 계곡, 한 여름 찌는 듯한 더위에서도 이렇게 보기 좋은데 단풍 물들은 가을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짧은 언어로 표현 할 수 없는 나의 무지가 못내 아쉽다. 아름답다라는 이 말밖에... 마음 같아서는 물 속에 첨벙 들어가 부풀어오른 다리를 담가보고 싶지만 여기서는 손 담그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식수이기 때문에 물통이 있으면 받아서 맛볼 수는 있단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내려가려 하는데, 정상 갔다 내려오는 김은이가 꼬드긴다. 꼭 12분만 가면 구룡폭포라는 말에 한번 더 속아보자 하여 올라가 우리 나

라 3대 폭포중의 하나라는 구룡폭포를 보았다. 위에서 밑으로 시원하게 내리꽂히는 물줄기... 나도 정상에서 보았다.

금강산 흐르는 물은 떨어지면 폭포요 흐르면 비단길이요 흩어지면 백옥이요 모이면 담소요 마시면 약수라

인생 별거 아니라던 나도 사진 찍기에 바빴다.

목란관에서의 점심식사. 냉면과 비빔밥 두 가지였는데 여기까지 와서 비빔밥을 먹냐하며 냉면을 시킨다. 이틀째 느끼는 거지만 음식이 정갈하고 깨끗하고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주는 그 주체성(?)에 또 한 번 감탄했다. 옆 상점에서 술 몇 병과 왠지 진짜일 것만 같은

천불동 고사리를 사고서 항상 옆에서 동행해준 김은과 수다를 떨며 하산했다. 점심식사 후. 옛날 어느 날 어느 왕이 하루 묵었다 가려다 경치가 하도 좋아 3일을 묵어 삼일포가 됐다는 그 곳에 우리는 돈 만원을 더 내고 유료 관광을 하였다. 차 20여대가 가는데 그 길게 늘어선 차의 꼬리가 더 볼만했다. 마치 학창시절 수학여행 가는 기분이었다. 가면서 창 밖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들을 볼 수가 있었고,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우리 시골 분교 같은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내려가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분단 중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었다.

둔해서일까! 삼일포는 그냥 넓은 호수였고 바다 밑 조약돌까지 셀 수 있을 만치 깨끗하다는 것 외에는 별거 없었다. 일행들은 둘로 나뉘었다. 삼일포를 돌아보는 사람들. 북측의 막걸리를 먹어보겠다고 남은 사람들. 나는 후자에 합류해 막걸리 두 잔에 삼일포에서 온 정각으로 오는 길을 잠으로 채워야 했다.

오자 마자 평양 모란봉 교예단의 그 유명한 서커스 공연이 있었다. 근래에 남북 무슨 행사 때마다 TV에서 보아왔지만, 목 빼고 가슴 조이며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는 인민배우들의 묘기는 정말 간장을 써늘하게 했다. 저녁 식사 후, 구룡마을 주차장에서의 금강산 기행의 별미인 통일의 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덧 나도 8-90년대를 알게 모르게 조금은 관심있게 쫓아 다녔던 어느 집회 장소에 온양 마음까지 설레고 있었다.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이름들이 소개 됐지만 알 듯 모를 듯 그동안 살기 바빴다는 핑계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본다.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의 굳게 닫힌 문이 금강산과 우리 200여명의 함성으로 열리면서 액맥이 타령으로 축제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손에 손을 잡고 느리게 빠르게 돌아가는 강강수월래는 또 한번 하나가 됨에, 통일은 이미 됐음을 마음속으로 느끼며 아주 신이 났다.

7월17일 마지막 날. 만물상 등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굽이굽이 102개 고개 길을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는 온정령 고갯길 24㎞. 12㎞는 전쟁 전 남쪽에서, 나머지 12㎞는 전쟁 중 북쪽에서 무기수송을 위해 단 이틀만에 만들었다니 대단하다.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위해 현대에서 특수 제작했다는 버스를 타고 산 입구까지 간다. 북측 안내원 동무의 설명을 듣고 올라갔다.

육화암, 삼선암을 지나 귀면암에서 70%의 만물상을 바라보고 100%의 만물상을 보러간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이 어젯밤 술에 절은 친구들과 다리 위에서 시원한 맞바람을 맞으면서 못올라가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웃었다. 북측 여성동무와 흥정이 잘됐는지, 수원서 온 젊은 친구가 막걸리와 참외를 사와 반갑다며 한잔을 권해 금강산 때문에 마신다고 너스레도 떨기도했다.

누군가 산을 둘러보며 "거 참 잘 만들었네" 했지만 자연은 만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 자연은 눈으로 보기만 했지 만져볼 수 없는 현실이 마음 아프다. 저 물 속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까지도! 눈에 아른거릴 만큼 깨끗하고, 좋아 보여도, 들고 오진 못해도 만져나 봤으면... 그 한은 지척에 고향을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 우리의 장기수 선생 님들,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하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될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자주민족으로 서는 날, 미군이 이 땅에서 나가는 날!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선생님들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내려오는 길에서는 6.25때 미군의 폭격으로 없어진 신계사터에서 기도를 올린다. 우리의 통일을...

◀ 경향만평 2005년 7월 20일

경향만평 2005년 8월 1일▶

알립니다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조국 광복60년 기획시리즈-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7시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 일 시 9월 14일(수) 오후 7시
■ 작품명 조국광복 60년 기획시리즈 <민족과 운명 제25부 노동계급 1편>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95년제작, 98분상영)
■ 줄거리 강선직강소내에서 쇠물작업을 하는 모범 집안인 직장장 강태관 일가와 그 지붕아래 모이는 귀환병들 등 여러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

8월 산행

■ 가는곳 수락산
■ 일 시 8월 21일(일) 오후 10시
■ 장 소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종점)
■ 준비물 간단한 도시락과 회비 3,000원

❖ 8.15민족대축전 일정(안) ❖

일자	행사일정	행사내용	비고
8월 14일 일요일	10시	북측대표단인천공항 도착	
	12시~14시	숙소도착 / 점심식사	
	14시 30분~16시	실무협의, 현장답사	
	16시~17시	남측대표단사전교육	
	17시~18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민족대행진	
	18시~18시 40분	개막식(상암경기장)	
	19시~21시	8.15남북통일축구경기(상암경기장)	연세대정치문화행사
8월 15일 월요일	9시~10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8.15민족대회 (장충체육관)	
	10시 30분~11시30	서대문형무소참관	대학로범국민대회
	12시~14시	점심식사	범국민대행진(~13시)
	14시 30분~16시	민족단합체육유희경기(장충체육관)	
	17시~18시 30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8.15민족대축전 축하공연	남측예술공연
	19시30분~21시30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 축하연회	워커힐호텔
8월 16일 화요일	9시30분~11시30분	부문접촉행사	
	12시~14시	국회의장초청오찬	
	14시 30분~16시	겨레말큰사전편찬 보고대회	
	17시~18시	사전공연 / 폐막식	
	18시~20시	여자축구경기	
	21시~23시	환송만찬	
8월 16일 화요일	9시30분~11시30분	부문접촉행사	
	12시~14시	국회의장초청오찬	
	14시30분~16시	겨레말큰사전편찬 보고대회	
	17시~18시	사전공연 / 폐막식	
	18시~20시	여자축구경기	
	21시~23시	환송만찬	
8월 17일 수요일	7시~7시30분	아침식사	
	8시~11시30분	참관행사(창덕궁, 행주산성)	
	12시~14시30분	점심식사(숙소)	
	16시30분	북측대표단인천공항 이륙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결의의 밤
-60년의 대장정 승리 앞으로! -

■ 장 소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 일 시 8월 14일(일) 오후 10시

8.15 반전평화 자주통일 범국민대회

■ 장 소 대학로
■ 일 시 8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FAX : 02-888-4350 ■E-mail : yangsimsu@hanmail.net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기타( )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4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5년 7월 25일 현재 민가협 조사 통계

❶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구속자의 명단파악이 어려움으로 인해 아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❷7월 25일자 민가협 조사에 의한 구속자는 적용법규별로 국가보안법 8명, 집시법 15명, 노동관계(업무방해 등) 23명, 특공 공방 13명, 폭력 58명, 화염병 26명, 병역법 1053명(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집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기 미결
김광태	노동자	건설일용노조	여중생추모집회	04-02-04	공방, 폭력	1년6월	2005/08	전주교 1117	기결
주민철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 18	미결
김의석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관련 집회	05-04-01	집시	1년6월	항소중	울산구 34	미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4-08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부산구 6019	미결
정재윤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4-16	업방, 폭력			울산구 26	미결
이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크레인시위	05-05-17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울산구 31	미결
이춘근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 5	미결
금대현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 25	미결
김종운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 30	미결
이민우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 17	미결
박영용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 13	미결
김연원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 14	미결
이두교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 52	미결
박사우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 4	미결
권혁수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크레인시위	05-05-28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울산구 38	미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울산구 36	미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울산구 16	미결
이종화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울산구 43	미결
최영철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 32	미결
박승주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울산구 29	미결
김석영	노동자	금속연맹	노동자대회(11.9)	04-03-11	집시, 폭력	1년6월	2005/09	경주교 375	기결
김우용	노동자	기아자동차노조	경제특구반대시위	04-02-22	업방, 집시	2년6월	2006/08	청주교 65	기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05-02-22	명예훼손, 정통법	8월	상고중	부산교 906	미결
구재보	노동자	세원테크노조	이현중열사 관련 시위	03-12-22	폭력, 업방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1959	기결
조지남	노동자	순천한고을노동자회	송정리미군기지 철수시위	05-06-17	집시			광주교 3325	미결
김도영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법원)	사법개혁 관련 시위	05-05-24	공무원법, 공방			영등포구 3405	미결
강성철	노동자	전해투	한성여객 파업 등	04-02-28	공방, 업방	1년6월+6월+6월	2006/02	목포교 6	기결
엄기준	노동자	㈜유성기업	노동자대회(11.9)	03-12-10	집시, 폭력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2999	기결
안기호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파업	05-02-13	업방, 폭력			울산구 24	미결
박태규	노동자	화섬연맹	노동자대회(11.9)	03-11-12	집시, 폭력	1년6월+1년6월	2006/11	부산교 1406	기결
김정곤	노동자	LG정유 노조	파업	04-08-13	업방	3년	파기환송심	광주교 3356	미결
조현수	농민	전농(청송 안덕)	한칠레FTA반대시위(6.20)	03-11-30	특공, 폭행치상	1년6월+10월	2006/03	안동교 3010	기결
조현삼	농민	진주농민회	송정리미군기지 철수시위	05-06-23	집시			광주교 3345	미결
한현호	재야	고양청년회	송정리미군기지 철수시위	05-06-22	집시			광주교 3351	미결
이원표	재야	사회당(대전)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11-02	병역법	1년6월	2006/05	대전교 800	기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04-06-20	특가법	1년+6월	2006/02	원주교 891	기결
임성환	재야	아웃사이더㈜ 대표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09-08	병역법	1년6월	2006/03	영등포구 2579	기결
염창근	재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12-01	병역법	1년6월	2006/06	충주구 654	기결
최 진	재야	작은 누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6-28	병역법	1년6월	상고중	대구교 1557	미결
강태운	재야	전 민주노동당 고문	회합통신 사건	03-08-15	국보	6년	2009/08	대구교 90	기결
임재성	재야	전쟁없는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1-28	병역법	1년6월	상고중	서울구 1560	미결

고천만	재야	전철연	강제철거반대(수원)	04-12-16	공방,특공	8월	2005-09	안양교 3304	기결
김영재	재야	전철연	강제철거반대(상도동)	04-01-19	공방,폭력	2년	2006-01	서울구 76	기결
김재완	재야	전철연(고양풍동)	강제철거반대	05-01-31	집시,폭력			의정부교 1173	미결
채남병	재야	전철연(고양풍동)	강제철거반대	05-01-31	폭력,공방			의정부교 664	미결
인태순	재야	전철연(권선3지구)	강제철거반대(남가좌동)	03-05-22	특공	1년6월+1년	2005/12	청주여 12	기결
주왕식	재야	전철연(서울 청진동)	강제철거반대	05-05-12	공방,폭력			서울구 55	미결
조영귀	재야	전철연(수원망포)	강제철거반대	05-02-17	집시,폭력			수원구 482	미결
남현희	재야	전철연(십정동)	청와대앞 1인시위	05-07-04	집시,폭력			서울구 74	미결
장광배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24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5-03	화염병,치사			수원구 339	미결
김희수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38	미결
이복만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28	미결
이재남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03	미결
최진용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13	미결
김홍중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06	미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50	미결
한호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51	미결
지광호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17	미결
이용이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34	미결
방영철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46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58	미결
배용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36	미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15	미결
홍경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5-20	특공,공방			수원구 414	미결
김완규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19	미결
이병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25	미결
정용표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30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40	미결
손정민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29	미결
정형용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37	미결
강재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치사			수원구 321	미결
이규천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5-03	특공,폭력			수원구 332	미결
유경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48	미결
김기준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01	미결
이영자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157	미결
오태양	재야	좋은 벗들(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08-30	병역법	1년6월	2006/02	충주구 894	기결
민경우	재야	통일연대	회합통신 사건	03-12-01	국보	3년6월	2007/05	전주교 2500	기결
유호근	재야	희망동네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2-17	병역법	1년6월	상고중	서울구 2576	미결
이동진	학생	경상대	한총련불탈퇴(7기)	04-07-27	국보	3년	2007/07	대구교 50	기결
이종남	학생	경원대	2001년 민중대회	03-10-11	집시,폭력	2년6월	2006/03	공주교 1301	기결
이덕용	학생	경원대	한총련불탈퇴(10기)	03-07-19	국보,폭력	2년6월	2005/12	군산교 985	기결
박대성	학생	경원대	이적표현물	04-04-15	국보,폭력	2년6월	2006/10	마산교 1048	기결
임치윤	학생	동아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09-07	병역법	1년6월	2006/03	부산교 1655	기결
나동혁	학생	서울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08-31	병역법	1년6월	2005/12	서울구 2360	기결
윤영일	학생	전남대	"518 묘역시위,이적표현물"	04-04-10	국보,집시	1년6월+1년6월	2007/04	광주교5110	기결
류형철	학생	전남대	송정리미군기지철수시위	05-06-30	집시,국보			광주교 5006	미결
민기채	학생	전남대(졸)	이적표현물	03-04-12	국보	1년8월+3년	2007/11	대전교 4009	기결
조정의민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5-17	병역법			성동구 596	미결
김성봉	학생	한신대	대우차쟁의해고반대시위(01년)	04-02-14	집시,화염병	2년	2006/02	청주교96	기결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현황(총 48명)

이 자료는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 모임>에서 정리한 것임

1. "4년이상 장기수배 (24명, 03년 7월 25일 검찰수배해제 조치 이후 추가 수배된 2명 포함)"

지역	학교	이름	수배 사유	연차
서울	상명대	김지영	98년 총학생회장, 서부총련 투쟁 본부장(6기 대의원)	8년째
서울	광운대	이무진	98년 공대학생회장 / 99년 부총학생회장(6기, 7기 대의원)	8년째
서울	명지대	윤기진	99년 총학생회장, 한총련 의장, 범청학련 의장(7기 대의원, 범청학련건)	7년째
서울	경희대	조양진성	00년 (미대사관 투쟁건)	6년째
서울	경기대	김미연	00년 총여학생회장 / 02년 부총학생회장(8기, 10기 대의원)	6년째
서울	건국대	나진숙	00년 총여학생회장 / 02년 총학생회장, 동총련의장(8기, 10기 대의원)	6년째
광주	조선대	이희철	00년 총학생회장, 한총련 의장(8기 대의원)	6년째
광주	조선대	황광민	01년 상대학생회장 / 02년 총학생회장, 남총련의장(9기 10기 대의원)	5년째
서울	서울대	김상률	01년 사범대학생회장(9기 대의원) 5년째	
경기	한국외대	양경수	01년 총학생회장, 경인총련의장(9기 대의원)	5년째
서울	동국대	유영빈	02년 경영대학생회장 / 03년 총학생회장(10기, 11기 대의원)	4년째
서울	단국대	박요섭	01년 단국대 활동가조직사건	5년째

지역	학교	이름	수배사유	연차
서울	중앙대	박종민	01년 총학생회장(9기 대의원)	5년째
광주	전남대	심진	01년 자연대학생회장(9기 대의원)	5년째
광주	전남대	박형준	02년 법대학생회장(10기 대의원)	4년째
서울	중앙대	정상길	02년 총학생회장(10기 대의원)	4년째
서울	한양대	김태현	02년 공대학생회장(10기 대의원)	4년째
서울	건국대	방기영	02년 이과대학생회장(10기 대의원)	4년째
서울	서울산업대	홍기웅	02년 건설대학생회장 / 03년 부총학생회장(10기 대의원)	4년째
서울	경기대	박공기	02년 총학생회장, 서총련 조통위원장(10기 대의원)	4년째
경기	경희대	양대석	02년 총학생회장, 한총련 학자추위원장(10기 대의원)	4년째
경기	명지대	유주환	01년 동아리연합회장 / 02년 총학생회장(9기, 10기 대의원)	4년째
경기	인천대	박종현	02년 총학생회장(10기 대의원)	4년째
경남	경상대	김준형	02년 법대회장 / 03년 총학생회장(10기, 11기 대의원)	4년째

2. 03년 7월 25일 검찰수배해제 조치 이후 수배(18명) – "한총련 대의원 건(12명, 4년 이상 수배 2명 포함)"

지역	학교	이름	수배 사유	연차
서울	동국대	유영빈	02년 경영대학생회장 / 03년 총학생회장(10기, 11기 대의원)	4년째
경남	경상대	김준형	02년 법대회장 / 03년 총학생회장(10기, 11기 대의원)	4년째
서울	경희대	우대식	03년 총학생회장, 한총련 대변인(11기 대의원)	3년째
서울	홍익대	김동호	03년 동아리연합회회장(11기 대의원) 3년째	
서울	중앙대	박지현	03년 총학생회장, 서남총련 의장(11기 대의원)	3년째
경기	한신대	이영훈	03년 총학생회장, 한총련 조통위원장(11기 대의원)	3년째

지역	학교	이름	수배사유	연차
경기	인천대	고인규	03년 총학생회장(11기 대의원)	3년째
경기	한국외대	허혼희	03년 총학생회장, 한총련 학자추위원장(11기 대의원)	3년째
충청	고려대	김현주	03년 총학생회장, 충청총련 의장(11기 대의원)	3년째
강원	연세대	이현민	03년 총학생회장(11기 대의원)	3년째
대구	영남대	천기창	03년 총학생회장, 대경총련 의장(11기 대의원)	3년째
대구	영남대	강정은하	03년 총여학생회장, 전여대협 의장(11기 대의원)	3년째

3. 04년 8월 15일 8.15민족통일대회 참가 건 수배(6명)

지역	학교	이름	수배 사유	연차
서울	광운대	안서영	04년 총학생회장, 동총련의장 (2004년 815대회건)	2년째
서울	단국대	이경수	04년 총학생회장, 서총련 의장(815대회건)	2년째
경기	경희대	어준수	04년 총학생회장, 동부총련의장(집시, 국보)	2년째

지역	학교	이름	수배사유	연차
강원	강원대	윤민섭	04년 총학생회장, 강총련의장(2004년 815대회건)	2년째
부산	부산대	전위봉	04년 총학생회장, 부경총련 의장(2004년 815대회건)	2년째
광주	조선대	백형진	04년 총학생회장, 남총련의장	2년째

4. 그외의 수배상황(8명)

지역	학교	이름	수배 사유	연차
서울	중앙대	김민석	03년 스트라이커 투쟁건	3년째
광주	조선대	김선남	03년 투쟁국 간부(국보,집시,특공)	3년째
광주	조선대	맹종안	05년 투쟁국 간부(집시,특공)	1년째
광주	광주대	이태곤	05년 총학생회장(집시,특공)	1년째

지역	학교	이름	수배사유	연차
광주	광주대	김상권	03년 남총련간부(집시,특공)	3년째
광주	전남대	김성진	03년 법대학생회장(집시,특공)	3년째
광주	전남대	이준상	04년 투쟁국장(집시,특공)	2년째
광주	전남대	이병영	집시(확인불가)	

01

인천통일연대 주최로 인천가톨릭회관에서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과 맥아더의 재평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다. 발제를 맡은 강정구 교수는 '6.25전쟁은 남한 단독정부를 세우려는 5.10선거 전후해서 통일을 이루려는 (세력의)단계적 내전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누구를침략자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맥아더에 대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조선분단의 집행자 강압적 포고령을 내린 식민지 점령총독 인천상륙 후 유엔 승인범위를 넘어 38선을 넘어 북진을감행, 진영전쟁을 유발 중국과 이북에 원자탄 투하 주장 등 인류의 적으로, 이러한 맥아더의 본색을 안다면 당장 동상을 철거해야한다고 강조하다.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미 공군기지 '울프 팩(Wolf Pack-제8전투비행단)으로 돌진하며 항의하다. 농민들과'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되찾기 시민모임 '은 기름유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 미군 측의 공식사과 기름유출사건조사단에 민간인과 시민사회단체 포함 등을 요구하며 29일부터 철야농성을 해왔음.

02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한반도 전쟁반대 7.10평화대행진'을 앞두고 평택시내 곳곳에서 유인물 배포, 마당극, 서명운동, 모금운동을 벌이다.

03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영규 판사)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황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다. 재판부는 '대체복무를 규정한 법률이 없는 현행 형사법 체계상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젊은이와의 형평성, 기본권과 병역의무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후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밝힘.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일본 우익세력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펴낸 '후소사'판 역사왜곡교과서의 채택저지를 위한국민모금운동 기자회견 '을 열다.

04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 투쟁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에 관한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비상대책위는 법무부가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라며 이날부터 1주일 동안 과천청사(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기로 하다.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통일연대 등 34개 인권. 평화, 통일. 지원단체 등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등 97명이 발의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인권을 빌미로한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인도적 지원에 족쇄를 채우며 남과 북의 평화와 공조를 가로막는 법'이라며 법안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CN&P'에 의뢰해 전국의 대학생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나라는 미국63%, 이북 23%, 일본 5%로 나타났고 전쟁이 나면 한국정부의 역할에서는 미국에 전쟁중단요청 41%, 한미연합군에 참전 24%, 전쟁불참선언 25%로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자주권강화 53%, 한미동맹강화 35%로 한일간 군사대결에서 미국의 선택에서는 일본편 56%, 중립 25%, 한국편 14%로 세계속에서의 민족의미에서는 탈민족 22%, 민족성향으로가 64%로 통일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 통일에 대해 그래도 찬성 33.2%, 시기조절 통일 51%, 반대 25%로 나타났음.

05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노동자의 날에 자료집 300부를 만들어 선, 후배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대학생 김 모 씨의 상고를기각하다.

양심수들에게 보낼 말지 7월호 발송작업하다.

06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000여명은 평택 팽성읍 대추초등학교에서 '7.10평화대행진'에 앞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결의대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철수'라는 손현수막을 펼쳐들고 미군철수를 외치며 철조망에 소지천을 달고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하다.

07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575회 목요집회를 열다. 조순덕 상임대표의 여는말, 권오헌공동대표의 광주패트리어트 미군기지 시위 관련 구속자 석방 및 광복절 양심수사면촉구발언, 임기란 전 상임의장 한주간 인권활동보고 등이 있었음.

과거사법 개정발의와 관련 오종렬, 권오헌 등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김희수 변호사 등 열린우리당 정창래 의원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등 만나 발의의원들 격려하다. 권오헌 대표는 별도로 국회에서 광복절 양심수사면을 건의해 달라고 요구하다.

858기 가족회와 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는 천주교인권위

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8년 1.15일 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의 폭발물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론하며 그 진상규명을 촉구하다. 공학박사이자 화학류 관리기술자인 김동수 동아대 겸임교수는 KAL858기 '폭파 테러용 폭약에 대한 감정결과 소견'을 발표하면서 '안기부 발표는 공학적, 기술적으로 황당무계하다'며 많은 분량의 감정결과 증명자료를 발표하다.

08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덤프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이 주최하여 '노동부장관 퇴진, 특수고용자 노동3권쟁취, 비정규노동자권리보장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결의대회'를 열다.

0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10차 회의에 참가할 북측 대표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다.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조현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박정성 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진 철 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방강수 대표 등은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 여장을 풀고 이날 밤 정동영 통일부장관 주최 환영만찬에 함께하다.

이북의 조선중앙TV는 긴급보도로 '6자회담 단장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 합중국 국무성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7.9일 베이징에서 만나 조미쌍방은 제4차 6자회담을 2005년 7월 25일이 시작되는 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방송은 '미국측은 조선이 주권국가임을 인정하고 침공의사가 없으며 6자회담 틀 안에서 쌍무회담을 할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며' 조선쪽은 미국 측의 이러한 입장표시를 조선에 대한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취소로 이해하고 6자회담에 나가기로했다 '고 전하다.

10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와 한반도 전쟁반대 7.10평화대행진'이 진행되다. 본 행사에 앞서 대추리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한반도 전쟁반대 발전과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다. 이어 사전행사로 100여명의 풍물놀이와 참가자 모두가 합창하는 주한미군철거가, 반미출정가 등이 있었고 10,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 농민노래패 '청보리사랑'의 노래공연, 지역주민들의 내 땅지키기 결의발언이 이어지다. 이어 미군부대 '인간띠잇기'에 들어가려했으나 경찰의 폭력저지로 격렬한 몸싸움이 벌여졌고 수많은 시위자들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가다. 서울시경 소속 1001전경부대 등 경찰병력은 이미 대회장에 오는 사람들까지 길을 가로막고 폭력, 폭언을 자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최규엽 최고위원이 크게 폭행당하기도 하다. 이윽고 시위자들은 미군부대 철조망에 접근, 소지천을 걸고 주한미군 이 땅에서 떠나라고 외치다. 황새울쪽에서는 철조망을 뜯어내기도 하다. 시위대는 대추초등학교에 다시 모여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했으나 경찰은 해산하여 돌아가는 대중들에게도 폭행을 가하다. 3명이 연행되었고 120여명이 크게 다쳐 굿모닝병원, 박애병원 등으로 후송되다. 이 날 7.10대행진은 지역주민의 우리땅지키기 뿐아니라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나순석, 김은 함께했음.

11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대표들,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심의위원들 현안문제 간담회를 갖다. 계승연대에서는 강민조, 권오헌, 박중기, 정종렬 상임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등 간부들이 함께했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하경락 위원장, 김삼웅, 정동익, 백경남, 정인봉 심의위원, 행정자치부 민주화보상지원단 정용준 단장 등이 함께하다. 하경락 심의위원장은 심의현황과 제도적 법적 한계에 따른 문제해결의 어려운 점을 말하다. 계승연대에서는 권오헌 상임대표가 의례 인사와 함께 오늘 간담회의주제가 되는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와 권리구제 관련 사항 민주화운동 관련사망자(민족민주열사)차별적용과 평등 형평성 문제 등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표 발언을 하다. 이어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지다.

대전충남 양심수후원회 김한섭 운영위원장과 길용수 사무국장,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공동기자회견 등 당면 과제 협의차 낙성대 만남의 집(양심수후원회 사무실)에 오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헌대표와 김은 사무차장이 함께하여 14일에 있을 광복절 60돌을 맞아 양심수사면촉구 기자회견문제,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 양심수 후원회의 사업방향성 문제 등 의견나누다.

12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공동으로 '곤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렬 상임대표의 여는말, 주종환 민화련 대표, 이정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방한규탄발언, 반미여성회에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쟁계획 중단, 대북인권공세중단 등을 촉구하고 테러의 근본원인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점령지배정책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다.

숭인동 전빈련회의실에서 '미군철수 남북공대위 건설을 위한 제사회단체 간담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보다 폭넓은 사회단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다. (범남본, 민자통, 전빈련, 전농, 사월혁명회, 양심수후원회, 한청, 한총련, 주한미군 철수운동본부 등 대표 참가)

지난 9일부터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10차 회의에서는 마지막 날 6.15공동선언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12개 항목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중대제안이 이북에 200만 KW전력을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다.

13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민가협,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농, 통일연대, KNCC 등 시민사회 단체는 '8.15광복절 60년을 맞아 양심수 전원석방 사면촉구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을 열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 국장 사회로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의 양심수 사면 시민사회 단체 입장발표, 민가협 박성희 간사의 양심수실태보고,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최정민 양심적병역거부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 등 사면촉구 발언이 있었으며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 부인 김혜정씨와 박정훈 교사의 석방촉구, 사면복권 촉구발언, 마지막으로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의 양심수전원석방촉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광화문 우체국 통일부 북한자료실에서 양심수후원회가 주관하는 매주 2번째 수요일 장기수선생님과 사회단체성원들과 함께하는 이북영화보기에서 민족과 운명 제34부 <카프> 작가편 제1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96년제작, 73분상영)을 관람하다.

14

대전교도소앞에서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등)이 주최하여 '조국광복 60돌맞이 8.15광복절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사면 복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김한섭 대천충남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대전지역 사회단체 대표들과 양심수후원회 대표 등 참가자 소개, 7.14일 현재 양심수 현황 등 보고에 이어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강태운 민주노동당 고문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 위반 혐의의 양심수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수 등 1,150여명 양심수 전원석방, 7년을 수배당하고 있는 윤기진 7기한총련 의장 등 한총련 수배학생과 노동자들에 대한 조건없는 수배해제조치, 출소한지 15년이나 되고 있는 박봉현, 허영철 노인 등 비전향 장기수를 비롯한 통일애국인사,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미 출소한 모든 양심수에 대한 사면 복권할 것을 촉구하다.

대전 대구, 서울에서 온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대표와 성원들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돼있는 민기채, 구재보, 엄기준, 이영표 씨 등 양심수를 나누어 면회하고 공주교도소에 갇혀있는 이종남 학생을 면회하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은 전교조 대전충남지부 회의실에서 대전충남 양심수후원회가 연속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부인사 초청강연회에 강사로 초청받아 반전평화, 자주통일의 민족민주운동과 제와 양심수후원회의 사업전망에 대해 강의하다.

15

경원대생 이덕용, 이종남 박대성 학생 등 양심수로 구속되어있는 세 학생의 광복절 사면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청와대 일대를 비롯한 도보순례를 매일 진행하고 있는 경원대 도보순례단은 이 날 저녁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양심수 전원석방 촛불집회를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 촛불집회에 함께하며 8.15양심수사면촉구와 도보순례단을 격려하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혐의로 많게는 8년까지 정치수배를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치수배 전면해제, 8.15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을 위한 '한총련 정치수배해제 모임'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해제 투쟁과 관련 간담회를 갖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 함께하며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격려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효원 부장판사)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구속수감되었던 함주명 씨의 재심청구 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다. 재판부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홍종수 씨의 진술 또한 '모호하며 불일치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선고문에서 밝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제받아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소속회원 등 2백여명이 합법적으로 금강산 통일기행을 떠나 15-17일까지 구룡폭포, 만물상, 삼일포 등을 답사하고 북측교예단 등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통일의 밤' 행사를 여는 등 처음으로 북녘땅에서 통일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다.

17

양심수후원회 회원 산행의 날. 분당선 미금역에 모여 광교산 입구, 풍덕천리-토월약수터-광교산 지맥능선-신복동 박철민 회원 집에 이르는 2시간 정도 짧은 산행을 하다. 구름이 많이 끼고 가끔 비도 내리는 시원한 산행을 하다. 박철민 씨 등 한양대 탈춤패 여든여덟은 뒤풀이 준비를 계획적으로 해놓고 있어 점심겸 푸짐한 안주꺼리 등 뒤풀이를 함께하다. 장소는 박철민회원이 이웃집 정원

에 세운 정자여서 더욱 운치가 있었음. 소개시간이 있었고 이어 이창희 회원의 제4차 6자회담과 동북아정세에 대한 시사해설이 있었음. 다음은 정자에서 800m쯤 내려와 박철민 회원의 주말농장(?)에서 '감자캐기' 를 하였고 이 귀한 농작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음. 김수룡, 김장현, 류종인, 유인호, 김재선, 신현익, 신현부, 나순석, 나민지, 이창희, 김창석, 이은미, 김태경, 김영철, 이혜주, 이병권, 박미정, 박철민, 전주리, 이호현, 이은재, 김민경, 박동규, 박동현, 권오헌 등 함께.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고성 남측출입국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현정은 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이 이북 원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8월말 백두산 시범관광과 8.15부터 박연폭포를 비롯한 개성지역 시범관광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의 확대, 해로를 통한 총석정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하다.

남과 북 대학생들이 금강산 회관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반전평화, 민족공조 실현을 위한 남북대학생 상봉모임' 을 갖고 교류와 연대를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다.

경찰청은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용산구 남영동 보안분실을 가칭 '경찰인권기념관' 으로 바꾸어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개조작업을 벌인다고 발표하다. 이른바 '남영동 분실' 로 불리었던 이 건물은 87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진 곳이고 함주명씨도 이곳에서 간첩으로 조작되었고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가혹한 고문을 당했었다.

18----------

남과 북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경의선 인근 군사분계선에서 남측의 KT사업협력실장과 북측 김인철 체신청 국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남북사이 광케이블 연결식을 갖다. 1945년 전화선이 끊긴 지 60년만에 복구되다. 이 연결로 8.15이산가족 화상상봉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후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사이 통신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연결되는 4코어는 인반 전화기로 200만가구의 통화를 동시에 수용할 수있다고 함.

19----------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6자회담 재개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의 북한인권대회규탄 기자회견' 을 열다. 한상렬 상임대표의 여는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의 규탄발언,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은 8.15광복절사면과 관련 양심수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출소한 양심수 사면복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중의 소리' 와 인터뷰하다.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독도수호 · 역사왜곡 중단 친일잔재청산 대학생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등 4개 단체는 공동으로 '8.15 금강산 대학생 선언대회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을 열다. 추진위는 오는 8.14일 금강산에서 전국 대학생 1,500여명이 참여하여 '일본군국주의 반대 ·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8.15금강산 대학생 선언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20----------

통일연대 회의실에서 상임 대표자 회의를 열다. 평택 7.10투쟁 보고 안건에 이어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 관련 분담금, 그리고 남정현, 정해숙, 이창복, 박순자 선생의 고문 위촉을 승인하다.

미국의 동북아 항공작전을 관찰하게 되는 '동북아 공군전투사령부(AFNEA)' 가 경기도 오산 미공군기지에 내년 1월 창설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 전투사령부는 일본 및 아태지역을 관할하는 하와이 태평양공군전투사령부(AEPAC)와 함께 태평양 사령부(CPACOM) 예하로 편제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오산 평택지역은 이 같은 동북아 공군 전투사령부와 미래형 사단까지 갖춘 미국의 핵심전략 요충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함.

20~25일까지 평양과 백두산, 묘향산 등지에서 열리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에 참가할 남측 작가 98명이 고려민항 전세기를 이용, 서해 직항로로 평양으로 떠나다. 남측에서 시인 고은, 신경림, 작가 황석영, 현기영, 평론가 백낙청, 염무웅, 임헌영 씨 등이 북측에선 김병훈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소설가 홍석중, 남대현, 시인 오영재, 장혜명, 리호근, 조세화 씨 등이 해외에서는 러시아 교포 소설가 아나톨리 김과 재미 희곡작가 이언호 씨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대표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리다. 북측에서는 인민무력부 유연철 대좌를 수석대표로 박기영, 엄창남 상좌가 남측에선 문석묵 대북정책과장(대령)을 수석대표로 김진영, 엄현성 대령이 함께하다. 실무회담에서는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 연락소를 8.18일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3단계 선전수단 제거를 7.25-8.13일까지 완료하며 제4차 실무대표회담을 8.12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기로 하다.

21----------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총련 정치수배 모임, 민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등 27개 사회단체는 '정치수배 전면해제와 8.15양심수 전원석방 및 복권을 위한 청와대, 법무부 공개면담 요청을 위한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을 열다. 정재욱 한총련 정치수배자모임 대변인 사회로 민변 장경욱 사무부총장의 수배해제 시민사회단

체 입장 결의 발언, 황선 (윤기진씨 부인)씨의 사례발표,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수배해제 촉구 발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송효원 한총련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탑골공원앞에서 8.15특별사면 양심수전원석방촉구 민가협 577회 목요집회를 열다.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여는말, 양심수 윤영일 전 남총련의장 모친 민정화님, 민경우 사무처장 부인 김혜정님, 양심적 병역거부 임성환씨 모친 등 석방촉구 발언 등이 있었음. 마치고 양심수 가족들 청와대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면담 사면촉구하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심리로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재심결정을 위한 심리가 진행되다. 도예종 선생 등 사법 살인 당한 열사들 가족과 인혁당 관련자 사회단체 성원 등이 방청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재심에 필요한 추가 증거자료를 요구하다.

22

계승연대 권오헌, 정종렬 상임공동대표와 이병주 집행위원장 조광철, 임영숙 간사 등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김준곤 비서관과 김현기 행정관을 면담하고 민주화운동관련 해직 인정자 등 빠른 시일안에 복직조치 등 강력히 요구하다. 이와는 별도로 권오헌 대표는 8.15광복절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사면복권 등 다시 촉구하다. 박봉현, 허영철, 임방규, 안학섭 선생 등 미복권 비전향 장기수 15명 명단을 전해주다.

국정원 과거청산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국정원에서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관련 조사결과 발표와 설명회를 갖다. 설명회에서 부일장학회 헌납은 박정희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부산일보와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보유한 김지태 사장을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시킨 뒤 석방을 조건으로 헌납받다. 박정희가 직접 운영한 5.16장학회에 이전되었으며 경향신문도 박정희의 직접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의 매각공작 등으로 강매당했다고 설명하다.

인사동에서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이 모여 후원회 사업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다. 김호현, 한찬욱, 이득형, 노혁, 이용준, 모지희, 이승미, 변의숙, 장재영, 심주이, 송창학, 김혜순, 오영순, 김은 함께

양심수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다.

23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6.15공동위원회 청년학생부 주최로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공동 집회 및 평화대행진' 행사를 진행하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광화문까지 행진하다.

남북문학인 대표 200여명은 지난 20일 평양 인문문화궁전 대회의실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공동취재단이 보도하다. 선언문은 · 6.15공동선언 정신계승 · 기관지 '통일문학' 발행 · 6.15통일문학상 제정 및 운영 등 5개항을 합의하다. 또한 남북작가들은 주체사상탑, 만경대 생가, 쑥섬 등을 견학하고 23일엔 150여명이 백두산에 올라 '통일문학 새벽' 행사를 진행했으며 저녁에는 묘향산에서 '민족문학의 밤' 행사를 갖다. 24일엔 폐막식과 폐막연회를 가진 다음 25일 남측참가자들은 고려민항 편으로 서울에 돌아온다고하다.

24

열린우리당은 단순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와 생계형 사범 등 430만명을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하여 청와대에 수정 건의했다고 밝히다.

25

중학동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앞에서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추모사업 연대회의 주최로 '올바른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촉구집회'를 열다. 추모연대 장현일 집행위원장 사회로 이른바 '기여도' 적용과 관련 유가족들 농성 경과보고에 이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차별 없는 보상촉구 발언, 농성 유족들의 올바른 보상심의발언, 부산경남울산 열사회 김보경 사무국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농성 유가족들과 추모연대 집행간부들 민주화 보상자원단 정용준 단장을 만나 '기여도' 적용 등 잘못된 심의를 지적하며 올바른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교조 원상회복 추진위,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등 8개 단체 주최 계승연대 주관으로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인정자 복직권고 이행 및 불이익 행위근절 제3차 촉구대회'를 열다.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문영희 동아투위 위원장의 인사말, 권오헌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 동일방직 원풍모방 등 복직투쟁위를 대표하여 박순희 대표의 복직촉구발언 등이 있었고 강민조, 정종렬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제4차 6자회담에 앞서 이날 밤 중국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주최한 환영 만찬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오후에는 본 회의가 열리기 전 처음으로 조미 사이에 1시간 20분동안 양자 접촉이 있었음.

26

종로5가 기독교회관 정문 앞에서 한총련 정치수배자 모임 주최로

'정치수배해제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한총련 정치수배자 전면해제촉구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다. 유영빈 03년 동국대 총학생회장(4년수배)사회로 수배자 현황보고, 김현주 03년 충청총련 의장이며 고대 서창캠퍼스 총학생회장(수배3년)의 정치수배자의 인권실태보고 등이 있었고 황필규 KNCC인권위 목사,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수배해제 촉구발언, 이영훈 03년 한총련 조통위원장의 농성투쟁계획발표, 마지막으로 우대식 03년 한총련 대변인이었으며 수배자모임 대표가 기자회견문 낭독.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 팡페이 위엔에서 4차 6자회담 개막식이 있었음. 리자오싱 중국외교부장의 환영인사말에 이어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순으로 수석대표들의 개막 인사말을 하다. 북측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조선반도에서 무든 당사자가 핵전쟁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제거할 의향과 비핵화를 실현할 확고한 정치적 의지와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고 했으며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우리는 조선의 주권을 인정하고 침공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절대로 없다' 면서 '6자회담 내에서 조선과 양자회담도 준비돼있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다.

27

용산 미군기지 5번문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총, 전농, 평통사, 양심수후원회 등 11개 단체는 공동으로 '7.27정전협정체결 52년 평화협정체결 및 미군철수 촉구 기자회견' 을 열다.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 사회로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여는말, 한총련 유병문 대변인, 평통사 박석분국장 등 결의발언과 전상봉 한청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철조망에 비둘기가 물고 있는 '평화협정' 이라고 쓴 종이를 철조망에 꽂는 상징의식을 갖다.

4차 6자회담 이틀째를 맞아 6개국 수석대표들 입장발표, 기조연설을 하다. 북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우리의 목적은 미국의 핵위협제거 및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이며 이를 위해 적대관계 종식,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구축 그리고 무조건적인 핵 불사용을 담는 것이다' 라 했고,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북조선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효과적인 검증으로 폐기한다. 여타 참가국들은 평등 및 상호존중원칙에 기초하여 미사일 및 인권 등 양자 내지는 다자적 이슈를 처리한다... 나는 미국 대표로서 조선과의 관계 정상화에 착수할 것이다' 라고 밝힘.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중연대, 통일연대, 민변 등 공동으로 '미군주둔 60년 미군피해자 증언대회' 가 열리다. 대회에서는 조봉원(69)씨의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2리 곡계굴 학살 상황을 증언했고(365명 학살), 이창근(66)씨는 전북 익산역 폭격으로 250여명이 숨진 사례를 증언하다. 또한 경남대 이상길 교수는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 산해골 일원의 보도연맹 관련 학살피해자들 163명의 유해 발굴과정을 설명하다.

28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578회 목요집회를 열고 8.15광복절에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조건 없는 수배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복권을 촉구하다.

29

경기북부지역 미군문제 해결 범시민대책위는 의정부역 동쪽광장에서 주한미군트럭에 압사당한 고 김명자씨 49재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미군 범죄근절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다. 범대위 송정현 상임대표, 고양여성회 이은영 대표, 범대위 강홍근 대표 등 추도사와 결의발언이 있었고 미2사단 앞까지 촛불행진을 하려했으나 경찰의 폭력저지로 그 자리에서 고 김명자씨, 고 심효선, 신미선양, 고 이정숙씨, 고 박승국씨, 고 제종렬씨, 고 전동국씨, 고 이규순씨, 고 윤금이씨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불태워 하늘로 보내는 상징의식을 갖다. 경기북부연범대위는 지난 19일부터 11일째 동쪽광장에서 미군기지 무상반환, 미군범죄근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오고 있음. 한편 법무부는 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과 관련 주한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고 밝히다.

양심수들에게 보낼 민족218월호 발송작업하다.

30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웨딩홀에서 한총련 정치수배자모임 주최로 정치수배 전면해제, 8.15양심수 전원석방 및 복권을 촉구하는 '한총련 정치수배자 가족상봉모임' 행사를 진행하다. 정치수배학생, 실천단, 수배자가족, 한총련 가족, 민가협, 범민련 등 사회단체 성원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범민련 신윤정씨 진행으로 김창원 민주조동당 사무총장의 수배해제 촉구발언, 농성수배자 소개, 수배학생 지원단 대표소개 등에 이어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이규재 범남본 의장 등 수배해제 촉구와 격려말이 있었으며 수배 학생들의 부모님께 드리는 글(편지)읽기 등이 있었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공동으로 '정전협정 52년 한반도 전쟁계획 폐기,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위한 통일연대, 민중연대 반미공동행동' 집회를 열다. 한총련 소속 학생과 통일연대 소속 단체성원 등 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사회로 한상렬 대표의 대회사,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결의발언, 송효원 한총련 의장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철조망에 평화의 끈을 다는 상징의식이 있었음.